

범국민적 차원의 교육훈련 뒤따라야



김 영 복
(사학연금관리공단 시설과장)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가운데 전기나 유류, 가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대하게 되는 이런 물질들은 현대생활을 지배하는 각종 기기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또한 산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유익한 경우도 있으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고 조정하여야 할 시설과 장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고층건물의 화재사례들을 검토하면 화재요인이 대부분 이처럼 인화성 높은 연료 및 전기에 기인하고 있어 방화대책 수립시에는 전기·유류·가스 등의 소방설비나 장비 구비에 소홀해선 안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고층건물의 방화대책은 다른 어느 분야의 방화대책보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 또한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문제점부터 열거해 본다면 첫째, 건물이 높기 때문에 소방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점.

둘째,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일어날 소지가 클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피난시설 부족 등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

셋째, 건물의 높이나 규모에 비해 대부분 소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넷째, 각기 다른 조직체가 입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통제가 어렵다는 점등을 지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주의 소방의식이 높아져 화재예방에 관한 시설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선결문제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내재산은 내손으로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할 것이며 방화관리자는 물론 입주인원 전체에 대한 반복적 교육훈련을 통해 평소에도 늘 유사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자체는 방화구획 설치와 각종 내장재의 불연화로 인해 화재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외의 난연성이 없는 내장재, 사무용 집기비품, 카펫 따위의 화학물질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나 가스에 의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건물의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실이나 승강기 등이 연통 구실을 하여 화재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전 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상주인원의 대피에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상황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고층건물에 있어서 방재대책이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이르러 다행스러운 것은 건물주나 입주회사가 다같이 방화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이 준공될때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맞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엄격한 당국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은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건물소유주는 또한 이러한 법적규제 외에도 최근에는 건물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낮아 그 건물의 방화시설이 임대조건에서도 강조되기 때문에 건물의 방화시설 전반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다.

이와같은 변화에 따라 최근의 고층건물들이 제반 방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주나 방화관리자들도 방화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은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방화대책의 수립이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해 평균 7천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1천여명의 사상자와 1백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에 대한 당국과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은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건물주와 방화관리자, 또는 화재가 그야말로 강건너 불인듯 방심상태로 살아가는 일반인의 낮은 방화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만 화재사고에서도 인명피해가 빠지지 않고 뒤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재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각종 건축자재의 불연재료나 난연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고층화재가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주된 원인이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난설비 측면에서 볼때 각종 장비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유사시에 얼만큼이나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관리상의 소홀로 비상구 등 피난통로가 도난방지를 위해 자물쇠 등으로 폐쇄되어 있는 예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고층건물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완강기나 사다리 등 피난장비들이 제자리에 없는 경우도 아마 비밀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평소에 일반 입주자에 대한 대피훈련의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고층건물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평소에 비상통로라던가 화재시 탈출요령, 소화기의 사용법 및 건물에 설치된 소화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 하겠다.

고층건물의 방화대책은 각종의 방화시설에 못지 않게 입주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설이 제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시설사용법 인식도나 방화의식의 정도에 따라 그 효용성은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범국민적인 차원의 화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소방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관련기관, 또는 건물주, 국민 모두가 계속 연구·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나 대체로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이들 관계자들의 방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해 나갈 전망이므로 멀지 않아 우리도 선진방재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리라고 기대된다. □